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12월 26일(금)
(음력 11월 7일)
Пятница
26 декабря 2025 г.
№ 50 (1216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새해 장식을 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레닌 광장 **(이예식 기자 촬영)**

존경하는 사할린주 주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향인 여러분!

거리마다 밝은 불빛이 켜지는 특별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선한 변화를 믿고 미래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싶어지는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와 성스러운 성탄절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우리의 공동 노력과 분명한 목표 의식, 그리고 단결 덕분에 가능했던 중요한 성과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지역의 발전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생산 현장에서의 책임감 있는 업무든, 이웃을 향한 따뜻한 배려든,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 혹은 창의적인 이니셔티브든,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와 선한 마음이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다가오는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되고, 가장 대담한 계획과 희망이 실현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따뜻함과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곁에는 늘 힘이 되어주는 이들이 함께하고, 하는 일마다 행운과 내일에 대한 확신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감사의 말씀은 우리의 소중한 베테랑 여러분께 드리며,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가장 밝은 축복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고향의 미래가 행복과 번영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곧 새해의 불빛에 이어 밝은 그리스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모든 가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친지 모두가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년 한 해가 행복한 일들과 기분 좋은 깜짝 선물로 가득한 풍성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향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스도 성탄절을 축하 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

2026년 맞이하여
신년 인사말

사랑하는 사할린 동포 여러분!

활력과 도약을 상징하는 병오년, 말의 해 2026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사할린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묵묵히 일상을 지켜오신 동포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고 우리말과 문화를 지켜오신 여러분 덕분에, 사할린 한인 공동체는 언제나 따뜻한 온기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말의 해가 지닌 힘찬 기운처럼,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에도 건강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정마다 웃음이 가득하고, 마음에 품은 소망들이 모두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사할린 한인동포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동포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한민국영사출장소 국장현 소장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2025년도 역시 사건과 행사가 많은 해였습니다.

새고려신문사는 올해 '사할린에서 온 편지'라는 기획을 통해, 1970년대 KBS 라디오에서 방송된 사할린동포들의 편지 내용을 러시아어로 번역해 새고려신문 러시아어판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이 내용은 향후 책으로 출판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새고려신문사가 진 율리아 역사학 박사와 인무학 박사(원문 번역)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는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새고려신문사는 올해도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하여'라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성용 동포 화백과의 만남이 특히 인상적이었으며, 조 화백은 2025년 주 극동지역과 러시아의 여러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창의적인 성과를 거두신 분입니다. 또한 첫 상영을 앞두고 사할린한인동포 3세인 '토박이' 다큐멘터리의 도카 안톤 감독과 하 세르게이 프로듀서와의 만남은 방문객 수 면에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영화는 사할린한인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신문사가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한 분은 새고려신문사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정성훈 감독입니다. '희망래일'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 감독은 2025년 8월, 해당 단체의 사할린 탐방을 협력했으며, 임원들과 함께 새고려신문사의 노후 기자재 교체에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신문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정성훈 대표님을 비롯해 방학진, 허태곤, 신동순, 이동섭, 강태원, 김용옥 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모국으로 귀국하신 이후에도 우리 신문을 잊지 않고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안산 노인회 주훈춘 회장님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후원의 일환으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해주신 '라직스'치과병원 전용식 원장님, '1+2'가구공장 이용길 사장님, 그리고 늘 응원과 함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랴'건설회사 엄 유리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할린동포 사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미 있는 글을 투고해주신 KIN(지구촌동포연대) 최상구 대표님께도 별도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26년, 우리 신문은 창간 77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랜 세월 신문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애독자 동포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입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개 숙여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힘 입어, 더 좋은 뉴스를 전달하고 신뢰받는 신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고려신문사 배 윅토리아 올림

블라디미르 푸틴 연말 결산, 국가의 향방을 가늠한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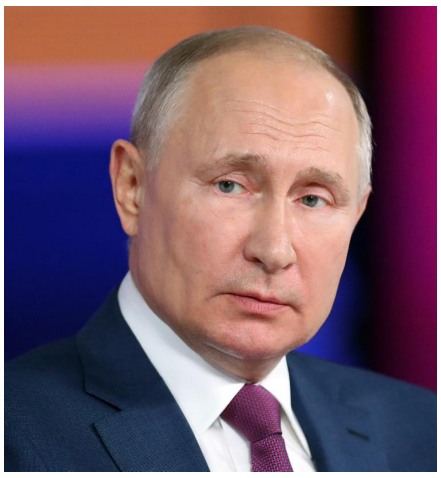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9일 생방송을 통해 한 해를 결산하며 국민과 언론 매체 대표들의 질문에 답했다.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번 '연말 결산'은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접수된 약 300만 건의 민원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사회·정치적 행사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이번 생방송은 텔레비전 채널 '러시아 1', '러시아 24', NTV, '페르위 카날'을 비롯해 라디오 채널 '마야크', '베스티 FM', '라디오 러시아'를 통해 동시 중계됐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총 103개의 질문에 답했다.

대통령은 경제와 사회 정책부터 특별군사 작전, 국제 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푸틴 대통령은 발언을 통해 이번 직통화의 주된 초점이 국민의 요구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하며, 직통화는 국가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 중 하나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방송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의 미래에 할애됐다. 푸틴 대통령은 세대 간 유대와 후손에 대한 책임, 그리고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가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교육, 주권을 갖춘 강대국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수장은 청년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잃어버린 세대'라는 표현을 믿지 않는다고 밝히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는 특별 군사 작전의 젊은 참전용사들을 예로 들었다. 그는 청년들의 자기실현을 위해 국가 차원의 교육 센터와 국책사업, 기회의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업무와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 군사 작전에 대해 대통령은 러시아가 설정된 목표를 일관되게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적 주도권이 러시아 군에 있으며, 해결 조건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러시아의 이익이 존중되는 전제하에서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성장, 산업 생산 확대, 임금 상승,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 등 주요 지표를 제시하며, 균형 잡힌 예산 덕분에 국가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고 미래 발전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 정책 역시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대통령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다자녀 가구, 특별 군사 작전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국가의 우선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새로운 지원책과 수당 체계 개편을 예고하는 한편, 국민을 대하는 행정 과정에서 형식적인 태도를 지양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가용 메신저 'MAX' 출시를 언급하며 디지털 주권 문제도 다뤘다. 아울러 전화 사기 범죄와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직통화 과정에서 대통령은 특별 군사작전 참전용사와 베테랑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국가가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사회 복귀를 원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의 경험과 책임감은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을 마치며 푸틴 대통령은 이번 '연말 결산'이 단순한 대화를 넘어 구체적인 결정을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일련의 지시 사항이 준비될 것이며, 관련 작업은 연중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만남의 가장 큰 성과로 새해를 앞둔 러시아가 국가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는 점을 꼽았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사할린 도착

KIN(지구촌동포연대)(이하 KIN)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2026이 사할린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사할린 동포들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와 모금을 통해 제작하였고, 올해는 댓글응원과 공유, 직접기부 등으로 2,893명과 1개 단체가 참여했고, 총 2,400부를 제작하였다. 사할린현지에는 벽걸이(1,120), 탁상용(400) 총 1,520부를 보내 현지 동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에 영주귀국한 동포들과 인천 사할린동포 복지관, 사할린동포 유관기관(재외동포청, 적십자, 국제보건의료재단)에 보냈다.

올해 사진은 KBS 한민족 방송의 이소연 아나운서의 소개로 사진가 김종배작가의 작품을 실었다.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산업은행 부총재를 역임하였고, 2009년 퇴임 후 사진작가로서 제 2의 인생을 펼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사진을 배웠고 지난 20년 동안 다섯 번의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제작과 운송에 필요한 재정은 카카오 같이가치의 온라인 모금액과, 단체 통장으로 직접후원, 재외동포청 지원, 삼성물산의 후원으로 마련하였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의 보조금 축소되었고, 국내동포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제한되었다.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사할린 현지에 보내기 위해 KIN의 자부담으로 상당부분을 충당하였다. 사업비가 고정적이지 못하고, 재외동포청 보조금도 제한사항이 생기는 등 상황변화에 따른 달력 사업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 대표)

이모저모

사할린, 2026년 연금 인상 상위 10위 진입

새해를 맞아 노령 보험 연금이 7.6% 인상될 예정이다.

사할린주는 2026년 연금 인상 폭이 가장 큰 러시아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됐다. 러시아 통신사 노워스찌는 이같이 보도했다.

사할린 지역은 기본 연금 수령액이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이어서,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수령액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2026년 연금 인상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추코트카로, 월 3,200루블이 인상될 전망이다. 2위는 네네츠크 자치구로 2,900루블, 3위는 마가단주로 2,800루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Сахалин вошел в топ-10 регионов с самой существенной прибавкой к пенсии в 2026 году

В новом году страховые пенсии по старости проиндексируют на 7,6%.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десятку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с самой существенной прибавкой к пенсии в 2026 году. Об этом пишет РИА «Новости».

С учетом индексации в 7,6% прибавка к пенсии по старости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авит 2,5 тысячи рублей.

Больше всего пенсия в 2026 году вырастет на Чукотке — на 3,2 тысячи рублей,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 прибавка составит 2,9 тысячи рублей,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ь — на 2,8 тысячи рублей.

중국, 2025년 러시아에 역대 최대량 귤 수출

중국산 귤의 러시아 매대 공급량이 크게 늘었다.

2025년 중국산 귤의 러시아 공급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7,810만 달러를 기록했다. 러시아 통신사 '노워스찌'가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출 실적은 201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러시아는 올해 1~11월 기준 중국산 귤 수입국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또한 11월 러시아의 중국산 귤 수입액도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6% 늘어난 2,200만 달러에 달했다.

Китай поставил в Россию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мандаринов в 2025 году

Поставки на российские прилавки выросли на 16%.

В 2025 году поставки мандаринов из Китая в Россию выросли до рекордных 16%, составив 78,1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Об этом пишет РИА «Новости».

По данным китайской таможни, показатель экспорта стал самым крупным с 2015 года.

Россия в январе–ноябре стала четвертым крупнейший импортером мандаринов из Китая.

При этом в ноябре российский импорт также показал рост — на 6% в годовом выражении, до 22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코르사코브에서 '아트 아르바트' 기념 행사 열려

코르사코브 문화여가센터 '오케안(대양)'에서 제10회 기념 수공예 박람회 '아트 아르바트'가 열렸다. 행사장에는 어린이용 교육 게임을 비롯해 장신구, 직물, 양초, 과자 등 다양한 제품과 먹거리를 판매하는 수많은 부스가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코르사코브 시청 공보실을 통해 전해졌다.

나탈리야 쿠프리나 코르사코브 시장은 이번 박람회에 코르사코브뿐만 아니라 유즈노사할린스크, 돌린스크, 포로나이스크에서 온 50명 이상의 장인들이 참여해 흥미롭고 이색적인 행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쿠프리나 시장은 "일부는 처음 참가했고, 어떤 이들은 이미 여러 차례 참여한 장인들"이라며 "정겨운 분위기와 체계적인 운영이 모두를 매료시켰다. 저 역시 모든 친척과 지인을 위한 선물을 구입할 수 있었다. 매우 인상적인 행사였다"고 말했다.

박람회의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행사에 참여한 장인들을 방문객들에게 직접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이를 위해 장인들과의 생생한 즉석 질의응답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공간도 운영됐다. 아이들은 진저브레드 하우스와 나무 모형에 색을 칠하고, 새해 장식물을 만들었으며 메헨디(인도식 헤나) 그림을 체험하기도 했다.

또한 행사장에는 추위 할아버지와 스네구로츠카가 등장해 아이들과 함께 원을 이루고 춤을 추는 한편, 어린이들이 낭송하는 시를 감상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비눗방울 쇼와 지역 예술 단체들의 공연 역시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다.

전통에 따라 이번 박람회에서도 '오픈 마이크'와 경품 추첨 행사가 진행됐다. 모든 방문객은 입장 시 추첨 번호를 받았으며, 행사 마지막에 당첨자를 발표했다. 경품은 박람회에 참여한 장인들이 직접 제공했다.

В Корсакове провели юбилейный «Арт-Арбат»

В КДЦ «Океан» Корсакова провели десятую юбилейную ярмарку ручной работы «Арт-Арбат». Гостям предоставил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прилавки с различными изделиями и угощениями, включая развивающие игры для детей, украшения, текстиль, свечи и сладости.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мэр округа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ярмарка — интересное и необыч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собрало больше 50 мастеров не только из Корсакова, но 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линска, Поронайска.

«Некоторые приехали в первый раз, другие — у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всех привлекает душевная атмосфера и чёт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Я смогла купить подарки всем своим родным и знакомым! Впечатления — просто замечательные», — дополнила Куприна.

Важной частью ярмарки стало знакомство посетителей с мастерами, чьи изделия представили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Для этого с умельцами провели живой блиц-опрос.

Кроме того, для гостей подготовили различные интерак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Так, дети расписывали пряничные домики и деревянные заготовки, создавали новогодние украшения и нанесли себе рисунок мехенди.

Также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шли Дед Мороз и Снегурочка, которые водили хороводы и слушали стихи от юных посетителей. Шоу мыльных пузырей и выступление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города стали еще одной важ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праздника.

По традиции ярмарка не обошлась и без «Открытого микрофона», и праздничного розыгрыша. Каждый гость получил лотерейный номер при входе, которые разыграли в финал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зы представили сами мастера, которы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ярмарке.

(8면에 계속)

사할린한인동포사회계 소식

2025년 사할린 한인동포사회는 변화속에서도 여러 한인단체들이 각자의 활동을 펼치며, 이들이 주최한 다양한 행사들이 동포들에게 기쁨을 전했다.

'은하수'한글학교, 발표회로 새해맞이

지난 12월 19일(금) 사할린에 위치한 '은하수'한글학교(교장 유경옥)에서 새해맞이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약 60~7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대부분 사할린동포 2세들이다.

학생들은 네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말부터 주 2회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무용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한민족 무용도 함께 배우고 있다. 한글 수업은 '액팅(능동적) 교육'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새해맞이 자리를 넘어, 한글학교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발표회 형식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민족춤을 선보이고, 한국어로 시를 낭송하는 한편, 배운 속담을 표현하는 무대를 통해 그동안의 배움을 보여줬다.

행사는 이후 따뜻한 대화와 다과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지며 마무리됐다.

(취재: 배순신 기자)

토마리서, '한 가정에서' 축제 개최

지난 20일(토)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 주최로 민족 간 화합을 주제로 한 축제 '한 가정에서'가 토마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코르사코브의 '아리랑'무용단(단장 박창순), 마카로브의 '드림팀'댄스스튜디오(단장 소로키나 율리아), '하늘'타악기 팀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다양한 마스터 클래스도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토르나도'스포츠클럽이 마련한 태권도 체험교실은 특히 인기를 끌었으며, 한글쓰기 체험교실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떡 만들기 체험 역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다.

이번 축제는 주정부가 지원하는 '세대의 연결, 전통의 이어줌' 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토마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해당 기획의 마무리 행사로, 지역 텔레그램 채널 '사할린 텔레그라프'가 이를 전했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주한인협회 제공)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노인정 어르신들과 따뜻한 연말 모임

지난 20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에서는 전통적인 노인정 어르신 모임이 열렸다. 올해 마지막으로 마련된 이번 모임에서는 명절 음식이 차려졌고, 어르신들은 담소를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 중에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시한인회 회원들은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무엇보다 건강을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본사 기자)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시티몰에서 팥죽 나눔 행사

동짓날을 맞아 지난 12월 22일(월) 사할린 최대 쇼핑센터인 시티몰 3층 행사장에서 팥죽 시식회와 한민족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열렸다.

이번 동짓날 행사는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곤)와 '한글'창작회(지도 배영희)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주최 측은 지난해 처음 진행한 이 행사가 한민족 문화를 널리 알리는 자리로 큰 호응을 얻어, 올해도 행사를 이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시한인회 여성들이 정성껏 끓인 팥죽을 맛보는 한편, 동짓날 전통에 따라 액운을 막는 의미를 담은 한자를 적은 카드를 만들어 집에 거꾸로 거는 체험에 참여했다. 또한 붉은 버선을 뜻하는 '홍말(紅襪)' 공예품 만들기 체험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동짓날 행사는 사할린 시민들에게 한민족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뜻깊은 문화 체험의 장이 됐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오랜 기다림 끝의 귀향,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2025년도 선정된 사할린동포 234명 중 82명, 18일 동해항 통해 귀국
1992년 영주귀국 지원 시작 이후 금번까지 총 5,690명 귀국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사할린동포와 그 후손 82명이 12월 18일 고국의 품에 안겼다. 이들은 2025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34명 중 첫 번째 귀국자들이다.

동포들은 사할린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17일 여객선을 타고 18일 오후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했다.

이번 귀국자 중 최고령은 김동히(85세) 어르신은 오랜 기다림 끝에 자녀들과 함께 고국 땅을 밟게 됐다.

영주귀국 사업을 주관하는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대한적십자사(회장 직무대행 김홍국)는 이날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환영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허정구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앞서 영주귀국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할린동포 등이 참석해 귀환 동포들을 맞이했으며, 김경협 청장은 하선장에서 첫 번째로 김동히 어르신을 맞이해 허정구 본부장과 함께 직접 행사장까지 안내하며 환영했다.

환영식 이후 귀국 동포들은 버스를 이용해 본인이 정착할 전국 각지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김동히 어르신을 비롯한 사할린동포 여러분의 귀국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올해가 광복 80주년으로 해방 후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도 오늘 이렇게 귀국하셨다"고 전했다. "새로운 정착 과정에서의 기대와 걱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건강검진, 국적취득, 행정지원 등 정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자녀 모두의 영주귀국이 가능해졌다면서 더 많은 동포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정구 본부장은 "적십자사는 귀국 후 여러분의 정착 과정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러 기관과 함께 세심히 돕겠다"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따뜻하게 환영한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귀국부터 국내 정착·생활안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귀국 후에는 임대주택 단체계약, 국적판정신청, 건강검진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992년 영주귀국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금번 귀국자를 포함해 총 5,690명의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사할린한인연합회, '동짓날' 맞아 나눔 행사 진행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고영순) 청년부는 동짓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역 동포 어르신들과 장애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팥죽을 나누고 새해 선물을 전달했다.

또한 연합회는 지난 22일(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팥죽과 명절 음식을 마련해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주로 사할린동포 2세 회원들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만두와 떡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놀이와 노래, 춤을 함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회원들은 주최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한민국 영사출장소 국장현 소장과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 총영사관 요코타 케이티 총영사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사 기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Дегустацию рисовой каши с красной фасолью 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ровели в Сити Молле

22 декабря 2025 года в торговом центре «Сити Молл» состоялось празднование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Дня зимнего солнцестояния — Дончжи-наль (동짓날).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е совместно МООСК ЮС «Сахалин ханин» и творческим объединением «Хангыль», было посвящено древним обычаям и обрядам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относящимся к празднованию Дончжи-наль.

Активисты «Сахалин ханин» создали на празднике атмосферу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угоща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патчуком (팥죽) — традиционной кашей из клейкого риса и красной фасоли. Это блюдо, обладающее глубокой символикой, принято есть в самый короткий день года, чтобы обрести силу и благополучие.

Особый интерес у гостей вызва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Анжелы Пе, возглавляющей творче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Хангыль». Участники смогли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изящному искусству корейской каллиграфии, а также своими руками изготовить один из символичных атрибутов праздника — посон (버선). Эти традиционные носки, которые в Корее принято дарить и надевать накануне солнцестояния, олицетворяют пожелания тепла, здоровья и счастья в наступающем новом цикле года.

Проведение подобных событий в публич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торгового центра стало ярким примером «культуры соучастия». Оно не только позволило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вязь с наследием предков, но и открыло это наследие для всех жителей острова, способствуя межкультурному диалогу и укрепляя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ую гармонию в регионе.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Фото: Ли Е Сик)

Встречаем 2026 год – год Красной Огненной Лошади

Многие верят в то, что как встретишь Новый год, так его и проведешь. И дело здесь не в волшебных иллюзиях, а в самом настрое человека и энергии вокруг.

Праздничные традиции помогают снизить уровень тревоги и чувство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само празднование укрепляет отношения с близкими, а Новый год дает мотивацию на будущее. Поэтому значение в праздновании имеет буквально все: и то, что будет стоять на вашем столе, и то, как будет оформлен ваш дом.

Как лучше праздновать Новый год

Новый год — семейный праздник, поэтому лучше всего его проводить в компании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Астрологи рекомендуют встречать 2026 год не так, как всегда. Например, если обычно встречаете Новый год у кого-то в гостях, эту новогоднюю ночь лучше провести дома.

Но, где бы вы ни были, провожайте старый год, вспоминая хорошее и подводя итоги. Обязательно загадайте желание под бой курантов или в момент наступления Нового года. Воспоминания о прошлых приятных моментах стимулируют позитивные эмоции, а новогодние обещания и загаданные желания могут служить стимулом для само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Что подать на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Традиция новогоднего стола — богатое застолье как символ благополучия в наступающем году. Без оливье, селедки под шубой и бутербродов с икрой сл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Туда же можем отнести холодец, мандарины и шампанское.

Тем, кто верит в астрологию и фэн-шуй, стоит соблюдать правила,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задобрить символ наступающего года — Красную Огненную Лошадь. На столе должны преобладать яркие и насыщенные блюда — особенно в красных и оранжевых оттенках. Для приготовления используйте много овощей, фруктов, зелени. Для основного мясного блюда подойдет свинина, говядина, курица, индейка, а в качестве гарнира — рис, морковь, свекла, болгарский перец.

(по материалам интернет-сайтов)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девятнадцатое письмо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Редколлегия

Слушай, мой сын Тхэвон (태원),

Жизненный путь человека в этом мире не имеет ни начала, ни конца. Оглядываясь на прошлое, вижу, что жизнь жалкого старика-отца была полна невезения. Десять лет – и то драгоценное время, а я здесь, в одиночестве, тридцать лет прожил свою жизнь впустую. Как же не горько об этом думать?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вы, шестеро моих детей, росли, я, как один из принудительных рабочих во времена японского правления, оставил вас всех на попечение вашей матери, надеясь заработать хоть немного денег, и тоже хлебнул горюшка. И вот,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ша родная земля освободилась от японского ига (1), и я, затаив дыхание,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ал дня, когда наконец встречусь с вами, моими любимыми женой и детьми. А дошло до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до такого положения. Разве это не печально и не горько? Если такова была судьба моей жизни, что ж, пусть будет так. Но даже в наше время, когда мы гордимся величайшей в мире цивилизацией, как может быть, что разлука отца с сыном, братьев, мужа с женой при жизни так безжалостна и бессердечна? Неужели это участь только одного меня, вашего отца? Здесь множество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ходятся в таком же положении. Какой же это трагический удел!

Даже сейчас красивые слова о гуманизме и уважении прав человека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по всему миру, как на Западе, так и на Востоке (2). Но когда же они станут реальностью? Чем больше я об этом думаю, тем больше не могу сдержать глубокого вздоха. Мне уже за семьдесят, теперь я не в силах даже трудиться, и у меня нет даже возможности думать о вас, моих детях. Как я могу надеяться встретиться с вами, моими сыновьями, при своей жизни? Но вы только не оставляйте старого отца. И не оставляйте также множество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со мной. Если каждый приложит крайние усилия и будет полон искренности, то, возможно, что-то и получится. Но если просто сидеть и ждать подходящего момента, то на что же надеяться? Всё это я говорю из желания увидеть нашу семью ещё при своей жизни. Но какой в этом толк?

Если бы вы прислали мне свою фотографию, это, возможно, немного скрасило бы мои тоскливые мысли на чужбине. Мне есть о чём сказать, но оставлю это на следующий раз, а вы, пожалуйста, поскорее пришлите ответ. Хорошо, что Тхэвон (태원) живёт по соседству в «Шинбаме» (вероятно, искажённое название места) и все живы-здоровы – это большое счастье. Жду только хорошего решения. Я слышал, что Тхэвон (태원) недавно искал (меня) по радио, и даже это уже утешает моё сердце. Встречу отца с сыном я доверяю лишь воле небес. На этом заканчиваю.

Из Южного Карафуто (Сахалина)
пишет отец Ан Чхагён (안차경).
Ан Пёнвон (안병원),
Ан Чханвон (안창원)

Комментарии:

(1) Период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над Кореей с 1910 по 1945 год стал временем глубо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травмы и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го уничтожения коре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культуры и идентичности. Формально начавшись с договора о аннексии, он установил режим жёсткого во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через институт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а со столицей в Кэйдзё (ныне Сеул). Япон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оводила политику полной ассимиляции,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превращение корейцев в лояльных подданных империи. Эта политика включала в себя постепенное вытесн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з образования и официального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а, а с 1939 года – кампанию п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му присвоению японских имён. Экономика была полностью переориентирована на нужды метрополии, что привело к изменению структуры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ывозу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и периодическому голоду среди местного населени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порты, заводы – развивалис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для эффективной эксплуатации корейских ресурсов и вывоза их в Японию.

Колониальный режим встречал постоянное, хотя и подавляемое сопротивление. Апогеем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стало мирное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е восстание 1919 года, жестоко подавленное японскими войсками с тысячами погибших и арестованных. Это событие привело к созданию в изгнании Време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активизации партизанской борьбы. Однако в 1930-е годы, с милитаризацией Японии и началом войны в Китае, гнёт ужесточился.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было мобилизовано на тотальную войну. Сотни тысяч людей были принудительно отправлены на тяжелейшие работы в шахты и на военные заводы как в самой Корее, так и в Японии. Десятки тысяч корейских девушек стали жертвами системы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для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известной как «женщины для утешения». На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этапе войны корейцев начали массово призывать в японскую армию.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ига Корея освободилась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с поражением Японии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В страну зашли советские (на север Кореи) и американские (на юг) военные, принявшие капитуляцию японских войск.

(2) Автор имеет в виду политическ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оцессы, которые проходили в 1970-е годы, стали переломными в истории прав человека и были отмечены сочетанием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го прогресса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е и чудовищных массовых нарушений основных свобод. На фоне продолжающейся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идеологическое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часто отодвигало гуманитарные вопросы на второй план, но именно в эти годы зародилось глобальное правозащитное движение в его современном понимании. Центральным событием, определившим лицо десятилетия, стало подписание Хельсинкского заключительного акта в 1975 году. В рамках Совещания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Европе (СБСЕ) СССР, США, Канада и европейские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знали уважение прав человека одним из десяти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х принципов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Пока в Европе закладывались основ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озащитного диалога,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мира разворачивались настоящие гуманитарные катастрофы.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погрузилась в мрак военных диктатур. В 1970-е годы случилась одна из самых чудовищных трагедий десятилетия – геноцид в Камбодже под властью «красных кхмеров» Пол Пота. Мир столкнулся с гуманитарным кризисом, поставившим вопрос о праве на убежище в центр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вестки.

Несмотря на мрачный фон, 1970-е годы принесли и значительные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е достижения. В ООН начали работу Комитет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на основе Пакта 1966 г.) и Комитет против пыток. Была принята Декларация о защите всех лиц от пыток (1975).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такие как Amnesty International (получившая Нобелевскую премию мира в 1977), «Хьюман Райтс Вотч» и национальные Хельсинкские группы, превратились в серьёзную силу, документирующую нарушения и мобилизующую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На Западе продолжали набирать силу феминизм «второй волны», экологическое движение, борьба за права меньшинств, выросшие из антивоенных протестов конца 1960-х годов, связанные с войной США во Вьетнаме.

1970-е годы оставили глубокий и неоднозначный след.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он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жёсткую способность государств к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му насилию против собственных граждан. С другой – именно в это время права человека перестали быт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нутренним делом, превратившись в легитимный предме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иалога, давления и солидарности.

Юлия Дин, к.и.н.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Ли Чжэ Мён поддержит превращение Пусана в морской центр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пообещал поддержать превращение Пусана в крупный морской и лог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после перевода туда министерства морского 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еревод в Пусан дан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даст толчок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му региональному развитию и станет новым рывком вперёд для Пусан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ыступая 23 декабря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которое состоялось в новом зда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в Пусане. Он добав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может Пусану стать ведущим промышленным и логист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не только для РК, но и для всей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 этой целью будет модернизирован морской порт, а региональные отрас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получат полную поддержку.

Финансовые власти обеспокоены падением курса воны

24 декабря финансовые власти РК выразили озабоченность продолжающимся обесцениванием национальной валюты по отношению к доллару. В совместном заявлении,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и Банком Кореи, говорится, что чрезмерное ослабление воны «нежелательно».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е недели финансовые власти страны неоднократно обсуждали ситуацию на валютном рынке и приняли ряд мер по борьбе с падением курса национальной валю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осуществить комплекс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действия,-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Предыдущее подобное заявление было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бря.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9:05 утра 24 декабря курс национальной валюты составил 1484,9 воны за доллар. Однако после заявления валютных властей он повысился до 1.465,5 вон за доллар. Снижение курса корейской воны и рост курса доллара объясняется повышенным спросом со стороны импортёров, осуществляющих платежи в конце года, а также покупкой валюты для инвестиций в зарубежные акции.

Удовлетворённость беженцев жизнью в РК на максимуме

Согласн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Фондом «Хана» 23 декабря, 81,2% респондентов удовлетворены жизнью в РК. Это на 1,6% больше, чем год назад, и максимальный показатель за весь период проведения подобных опросов. Самой распространённой причиной удовлетворённости стала «возможность жить свободной жизнью» (41,5%), тогда как основной причиной недовольства была названа «разлука с семьёй в КНДР или третьих странах» (24,3%). Доля тех, кто заявил, что сталкивался с дискриминацией, составила 14%, что на 2,3% мен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 является рекордно низ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При этом уровень участия бывших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ставил 64,8%, что на 0,7% вы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Выявлена утечка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клиентов Shinhan Card

23 декабря компания-оператор банковских карт Shinhan Card сообщила об утечке порядка 192 тысяч единиц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клиентов-владельцев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отчёте, направленном в комиссию по защите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в 181 тысяче случаев произошла утечка номера телефонов, в 8 тысячах - номеров телефонов вместе с именами владельцев, а в 2.300 случаях - расширенных данных, включая пол. При этом утечек финан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такой как номера карт и банковских счетов, не зафиксировано. Виновниками инцидента, как и в случае с платформой интернет-торговли Coupang, оказались сотрудники, занимавшиеся продажей карт партнёрам. Они незаконно передавали личные данные владельцев малого бизнеса третьим лицам для оформления карт. Нарушения продолжались более трёх лет - с марта 2022 года. Компания Shinhan Card узнала об утечке в ноябре. Поскольку взломов серверов компании не было, дальнейшие утечки информации исключены.

Нацсобрание РК приняло закон о борьбе с фейковыми новостями

24 декабря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К приняло Закон об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ях. В голосовании участвовали 177 депутатов. 170 из них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трое против и четверо воздержались. Закон определяет понятие ложной или сфабрикова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направлен на запрет её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ях. Зако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штрафные санкции в отношении СМИ и блогеров з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дезинформации с целью получения незаконной выгоды или причинения вреда другим лицам в размере до пятикратной суммы убытков. Искажения фактов с целью опорочить другого человека могут быть наказаны лишением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до трёх лет или штрафом до 30 млн вон (20.600 долларов).

RKI

От горы Пэктусан до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КНДР открыла новый крупный курорт Самчжиён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должает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развивать туристическ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делая ставку на крупные курортные проекты в стратегически важны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СМИ КНДР сообщили об открытии нового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ластера у подножия горы Пэктусан, а несколькими месяцами ранее начал работу масштабный курорт на 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страны в районе Вонсан-Кальма. Оба проекта демонстрируют стремление Пхеньяна превратить туризм в один из источников валютных поступлений в условиях жестк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анкций.

Самчжиён: ставка на "цивилизационный город" у Пэктусана

Как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20-21 декабря в городе Самчжиён, расположенном в районе Пэктусана, были одновременно введены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пять современных гостиниц. В первый день открылись отели "Иккаль" и "Мильён", во второй - "Собэксу", "Чхонбон" и "Потнаму". В церемонии лично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Ким Чен Ын, осмотрев номера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гостиниц.

Судя по реакции, вождь остался доволен результатом. По его словам,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удалось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совместить практичность, разнообразие и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выразительность, при этом он отдельн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ключевым элементом работы отелей должно стать не столько наличие сервисных объектов, сколько качеств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персонала. "Гостиницы должны в приоритетном порядке уделять внимание повышению уровня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квалификации работников", - заявил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также обозначил более широкую цель проекта, заявив о намерении превратить Самчжиён в город, который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туристическую культуру страны и станет "инновационным цивилизационным центром".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 что Пэктусан и его окрестности считаются священным местом для корейцев. Согласно легенде, именно здесь родился мифический основатель первого 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Тангун. Также историография Страны чучхе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на склонах горы в партизанском лагере родился и второй правитель КНДР Ким Чен Ир.

Судя по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СМИ фотографиям, новые гостиницы Самчжиёна оснащены не только высококлассными номерами, но и банкетными залами, саунами, открытыми подогреваемыми бассейнами. Обращает на себя внимание и наличие указателей "пресс-центр", что позволяет предположить расчет на проведение круп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ключа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конференции. Названия отелей отсылают к символике региона - характерным для Пэктусана деревьям, местам, связанным с официальной мифологией, и истокам рек.

На мероприятиях Ким Чен Ына сопровождала его дочь Чу Э, которая уже второй день подряд появилась вместе с отцом на публичных церемониях. В церемонии такж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ключев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артийного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включая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функционеров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и министров, что подчеркнуло политическую значимость проект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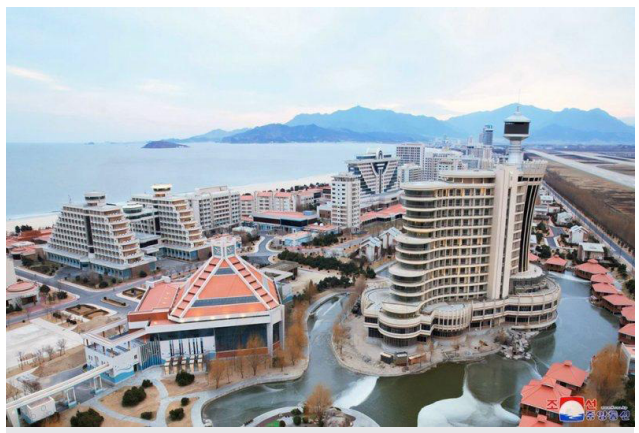
Развитие Самчжиёна как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узла рядом с Пэктусаном вписывается в долгосрочную линию Пхеньяна. Еще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им Чен Ын в выступлении по случаю годовщины образования КНДР заявля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евратить этот район в "мировой горны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Вонсан-Кальма: курорт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на 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Самчжиён стал вторым по счету крупным туристическим кластером, который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ткрыла у себя в текущем году. 24 июня Ким Чен Ын торжественно открыл курортный комплекс Вонсан-Кальма на 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страны.

Курорт расположен вдоль пятикилометровой полосы пляжей полуострова Кальма и включает более 150 зданий, в том числе 54 отеля и гостиницы, способные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инять до 20 тысяч человек.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омплекса, начатое в 2018 году, продолжалось семь лет. На его территории размещены аквапарк,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рестораны, спа-центры, а также аэропорт,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ный из бывшего военного аэродрома.

С 1 июля курорт начал принимать посетителей, однако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доступ открыт только для граждан КНДР и российских туристов. В середине июля Вонсан-Кальму посетила первая группа россиян из 13 человек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ергея Лаврова. По их отзывам, курорт отличается чистыми пляжами, хорошим сервисом и обильным питанием.



Новы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курортный комплекс "Вонсан-Кальма" тянется вдоль пятикилометрового пляжа. Корейцы при его создании используют лучшие мировые практики.

Фот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На курорте Вонсан-Кальма успели побывать и россияне, которые, судя по отзывам, остались довольны отдыхом. Российские туроператоры предлагают восьмидневные туры с отдыхом в Вонсан-Кальме по цене около 1800 долларов, включая перелет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через Пхеньян.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заявляют о планах превратить курорт в тур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и в перспективе привлекать до миллиона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ежегодно, рассматривая туризм как один из источников твердой валюты для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Как россиянину посети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Фото: Олег Кирьянов/РГ

Для поездки в КНДР российским гражданам требуется виза, которую оформляют через аккредитованных туроператоров -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е путешествия в страну невозможны. Документы на визу необходимо подать минимум за месяц до планируемой поездки. Основные российские туроператоры, работающие с этим направлением, организуют групповые туры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ю от шести до восьми дней стоимостью от 1200 до 1800 долларов, включающие перелет, проживание, питание и экскурсионную программу. Передвижения по стране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гидов.

Добраться до Пхеньяна можно тремя способами. Основной маршрут - авиарейс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Air Koryo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три раза в неделю). С июля 2025 года российск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Nordwind начала нерегулярные рейсы из Москвы - до двух раз в неделю, хотя они ориентированы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на деловые поездки. Кроме того, с июня 2025 года возобновилось прямо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е сообщение Москва-Пхеньян, занимающее около недели. В перспективе планируется запуск паромного сообщения Владивосток-Вонсан, которое займет 10-15 часов.

Туристические программы включают посещение Пхеньяна с его главным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и - площадью Ким Ир Сена, монументом идей чучхе, мавзолеем Кымсусан, метро и памятниками. Популярны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Масикрён (зимой) и уже упомянутый курорт Вонсан-Кальма на побережье Восточного (Японского моря). С января 2025 года открыта для посещения особ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зона Расон на севере страны. По статистике Погранслужбы ФСБ России, в 2024 году КНДР посетили 1600 российских туристов, а за перв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ода их число составило около двух тысяч человек. Эксперты прогнозируют, что по итогам 2025 года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россиян, побывавших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оставит 3500-4000 человек, ч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росте интереса к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Сахалинские артисты выступили с ярким концертом в военном госпитале

Ветераны СВО, которые проходят реабилитацию в военном госпитал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лучили творческий подарок к предстоящему Новому году. Артисты Союза деятелей эстр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подготовили для бойцов красочную концерт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священную главному зимнему празднику. Выступление талантливых вокалистов, музыкантов и танцоров состоялось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ого молодёжного ресурсного центра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штаба волонтёрского движения #МЫВМЕСТЕ.

Уже три года мастера эстр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приезжают сюда, чтобы порадовать выступлениями раненых участников СВО — за это время состоялось более 10 та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бойцов, которые проходят долгую реабилитацию, каждый визит артистов становится праздником. А если концерт посвящен особой дате, это событие вдвойне радует ветеран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Союз деятелей эстр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вместе с Сахалинским молодёжным ресурсным центром организует концерты в военном госпитале регулярно. Для нас это большая честь и радость — очень важно дарить тепло и положительные эмоции тем, кто ценой своего здоровья защищает нашу страну и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Донбасса. Не за горами Новый год, и мы хотели сделать декабрьский концерт особенным — праздничным, полным волшебства. Поэтому в репертуаре наших артистов на этот раз были добрые песни о любви, о новогоднем чуде. В госпитале нас всегда ждет теплый прием: бойцы с огромной радостью аплодируют нам и благодарят за внимание. От лица всех артистов Союза деятелей эстр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хочется пожелать им здоровья, скорейшег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 любви. Пусть у каждого из этих солдат будет кто-то, кто ждет их дома!» — рассказала президент твор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Екатерина Счастливая.

Для пациентов военного госпиталя выступили Елена Акшенцева, Шавкат Содиков, Катарина Sax, Светлана Петрова, Василиса Шустина. Екатерина И порадовала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разу двумя песнями: одну из композиций она исполнила сольно, а другую — в дуэте с Антониной Белошитской. Не раз выходила на импровизированную сцену и Екатерина Счастливая — помимо выступления соло она подарила ветеранам волшебную новогоднюю песню в трио с Анастасией Ширяевой и Светланой Петровой. Помимо праздничных мелодий в этот день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звучали строки о родной земле и любви. А завершением концерта стал сюрприз от сотруд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молодёжного ресурсного центра: они вручили защитникам Отечества подарки к предстоящему празднику, а также поделки ручной работы и письма от детей.

«Каждый концерт этих девчонок — настоящий подарок для всех нас. Будни в военном госпитале тянутся медленно, но после их приезда заряд позитива сохраняется н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Они согревают нас своим теплом, радуют своим талантом. Пробирает до глубины души эта искренняя забота о том, чтобы мы здесь не скучали и не хандрили.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всем! Для нас, солдат, каждое та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 это яркое воспоминание и большая радость», — поделился военнослужащий Денис.

Концерты для ветеранов СВО, в том числе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программ комплекс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после боевых ран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волонтёрского штаба #МЫВМЕСТЕ организует регулярно. Выступить перед бойцами артисты приезжают даже из других районов. Также к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е часто присоединяются школьники и студенты региона.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ходят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ёжь и дети» и акции «Сопричастность», которую инициировал и поддерживает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мимо творческих выступлений в военном госпитале артист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регулярно выезжают в регионы Донбасса и дают концерты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 привлекает бизнес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заключительное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2025 году. Одной из тем совещания с участием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ластных деловых сообществ стала реализация инвестпроектов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 одной из наиболее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ющихся территорий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 Третий год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веренно удерживает четвертое место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рейтинге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За девять месяцев 2025 года приток инвестиций вырос на 19,5 % в сравнении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2024-го. По итогам года сумма достигнет 400 млрд рублей. Наша задача — сохранить эту динамику. Мы продолжим создавать для бизнеса максимально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выстраивать открытый диалог и доверите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От этой работы напрямую зависит устойчивое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и благополучи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обратился к участникам заседания глава региона.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территорий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Близость к областному центру, удобные логистические пути, наличи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орского порта, а также действие сразу двух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х режимов — Свободный порт Владивосток (СПВ) и территория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ТОР) «Сахалин» — привлекательны для бизнеса с точки зрения географ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и перспектив развития.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района ведет комплексную работу — проводятся рабочие группы, регулярно обновляется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ортал с указанием действующих мер поддержки. Впервые муниципалитет провел комплексную оценку и составил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ортфель — «портрет» территории, где обозначены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инвесторов.

— В результате работы над инвестиционным портфелем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74 идеи инвестпроектов. Например,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временного грузового терминала морского порта и переработка отходов рыбной отрасли, производство тар и упаковки для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се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сформированы 12 площадок пригодных для инвестиций. Здесь уже готов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подключения к инженерным сетям. Еще три территории находятся в разработке, — сказала мэр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На основе анализ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ыделены два ключевых вектора развития — формирование кластера товар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марикультур и создание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с сопутствующими производствами.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ортфели подготовят и представят все 18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области.

На заседании также обсудили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роцедур по подключению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в 2025 году. Благодаря принятым мерам совместно с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ом и регион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сократ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процедур и время протекания процессов, в частности найден новый подход по оптимизации пути присоединения к сетям газоснабжения и организации поставки газа.

Была озвучена и информация об изменениях в налогово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е в 2026 году.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овместно с сотрудника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ФНС для област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роведут серию обучающих семинаров, где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жут обо всех нововведениях, вступающих в силу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Отметим, регулярные рабочие группы с участием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и совет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тали эффективными инструментами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бизнесом. Площадки помогают открыто обсуждать и устранять препятствия,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инвесторы. Также для выявления и решения различных вопросо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запущена платформа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ПОС) (https://econom.sakhalin.gov.ru/?page=pr&div=form2), работает сайт «Мой бизнес» (https://mybusiness65.ru/).

Сахалинским работодателям напомнили об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нарушения при привлеч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Работода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обходимо строго соблюдать установленные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ривле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За их нарушение предусмотрен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частью 1 статьи 18.17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несоблюдение ограничений н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отдельных вид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иностран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и лицами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несут как работодатели, так и заказчики работ (услуг). Рассмотрение таких дел отнесено к компетенции органов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полиции) согласно части 1 статьи 23.3 КоАП РФ.

За допущенные нарушения предусмотрены существенные санкции:

· для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 штраф от 800 тысяч до 1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либ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приостановлен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срок от 14 до 90 суток;

· для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 штраф от 45 тысяч до 5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помним,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5 декабря 2025 года № 1995 утверждена допустимая до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на 2026 год. По большинству вид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анные показатели снижены.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дельные региональные лимиты не установлены —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действуют общероссийские нормы.

Привести численность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соответствие с установленными требованиями работодатели обязаны не позднее 1 января 2026 года с учетом норм трудов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пункта 9 части 1 статьи 327.6 ТК РФ.

Кроме того,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1 ноября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продлении на 2026 год запрета на привле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осуществляющих труд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основании патентов, по отдельным вид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окумент направлен на защиту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ынка труда и обеспечение приоритетно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граничени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24 вида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Запрет применяется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является ли данный вид деятельности основным и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указанным работодателем при регистрации. При приеме на работу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имеющих патент, работодатели обязаны учитывать вс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коды вид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КВЭД).

Запрет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имеющих разрешение на време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или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граждан государств — членов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ЕАЭС): Киргизии, Армении, Казахстана и Беларуси.

За разъяснениями о порядке применения указа и особенностях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работодатели и граждане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в Агентство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67-25-44.

Мобильный офис Кадрового центра отправится по районам Сахалина в 2026 году

Специалисты Кадровых центр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2026 года будут знакомить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с возможностям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обучения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профессиям, организации собственного дела с помощью мобильного офиса. Содействие занятости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задач нацпроекта «Кадры».

— Мобильный офис —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сделать услуги службы занятости максимально доступными. Специалисты Кадрового центра поедут туда, где людям сложнее всего добраться д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ервисов. Наша задача — помочь 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выбором, обучением и дать понятные ответы на все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работой и карьерой», —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Кадрового цент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лена Савельева.

Мобильный офис размещен в специально оборудованном микроавтобусе со стационарными рабочими местами. Автомобиль оснащен компьютерной и оргтехникой, электрон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удобными местами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а также системой кондиционирования и обогрева. Такой формат позволяет вести полноценный прием граждан на выезде.

График выездов передвижного Кадрового центра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 в январе 2026 года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и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учреждения.

Отметим, содействие занятости остается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задач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Кадры», который направлен на подготовку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д реальные потребности экономики за счет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аботодателей и государства. К 2029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обновление всей сети службы занятости — в регионах появятся новые Кадровые центры «Работа России», где предприятиям окажут адресную поддержку, а соискателям помогут найти работу, выстроить карьерный маршрут и получить новую востребованную профессию. Обновленные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оекты реализуются по реш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с 2025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ширяются меры для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Родители детей от 1 года могут встать в лист ожидания на новую услугу в детсадах

С 15 декабря 2025 года род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записать своего ребёнка в возрасте от одного года до двух лет на новую востребованную услугу по присмотру и уходу на базе муниципальных детских садов.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через официальный портал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Эта практическая мера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призвана дать семьям больше гибкости и времени для решения бытовых вопросов, посещения врачей, работы или отдыха. Ребёнок в это время будет находиться в безопасной и развивающей среде под присмотром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педагогов.

— Наша цель – дать родителям уверенность и время. Теперь, зная, что малыш в надежных руках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мама может решить важные дела, уделить время себе или карьере, не жертвуя благополучием ребенка. Это и есть ре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семьи, — подчеркивает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Услуга запускается в рамках объявленного в регионе «Года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который получит своё развитие и в 2026 году. Это ещё один шаг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надёжной системы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где рождение ребёнка не нарушает привычный образ жизни родителей.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уже действует в четырё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город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етский сад №19 «Алёнушка»);

· город Холмск (детский сад №8 «Золотой ключик»);

· город Углегорск (детский сад №3 «Радуга»);

· город Корсаков (детский сад №7 «Солнышко»).

С 22 декабря 2025 года география проекта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илась. К нему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детские сады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Томари, Макарове, Смирных, Поронайске, Долинске, Ониве, Невельске, Курильске и Южно-Курильске.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слугу,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одробными условиями и всей мерой поддержки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можно на официальном портале: https://motherhood.mszapp.sakhalin.gov.ru/.

Программа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 комплексная инициатива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ддержку семей с детьми. В неё входят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финансовой, медицинской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омощ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청, 「제1차 재외동포 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심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및 동포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기본계획 수정 · 보완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2월 23일(화)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이번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

기본계획은 정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동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및 동포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 수정·보완을 추진하였다.

이번 기본계획 수정(안)은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연대와 동반성장을 토대로, 세계평화 및 공동성장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함께, '동포사회 다양한 목소리의 대변자이자 대한민국-동포-국제사회 간 상생의 촉진자'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한편, 5대 정책목표로서 ①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②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③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④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⑤동포 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제시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김경협 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수정 기본계획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다양한 재외동포의 현실과 수요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방향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현황 조사를 내실화하고, 재외국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과 동포 DB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외동포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재외국민이 주권자로서 불편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밀착 행정을 강화하여 동포사회가 직면한 핵심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한인대회 신설 및 공공외교 활동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대한민국과 동포사회 간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포청년 인재의 유치 및 정착 지원, 한상경제권 구축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은 향후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 강성철 연합뉴스 기자,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장, 김영숙 안산고려인문화센터장, 박우 한성대 교수, 송석원 경희대 교수, 아만다 조 美 테네시대 교수,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민호 통일일보 서울지사장, 이에스더 아테네한글학교 교사, 이영호 前 주예멘 대사, 이재명 KLAVI 최고책임자, 조영관 변호사,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재외동포청 제공)

[2026년 재외동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있게 답하겠습니다."

'동포 DB 구축을 통한 정책 기반 고도화
'참정권 보장 확대, 동포영사 확충 등 핵심 민원 해소로 실질적 권익 증진
'동포사회 네트워크 결속 및 활동 지원 강화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 확충
'범정부 동포정책 추진체계 정비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2026년은 국민주권정부가 차별 없는 포용의 관점에서 동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재외국민이 국내·외 어디에 있든 주권자로서 불편 없이 권리를 행사하고, 재외동포가 합당한 보호와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동포 정책 전면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각지에서 위상이 높아진 동포사회의 역량이 대한민국의 외교·경제적 자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 중심의 동포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위해 ▲「동포 DB」구축 ▲동포 핵심민원 해소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 ▲정책 추진체계 일원화 등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동포 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동포 DB] 구축

보다 실효성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위해 동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매 홀수년도에 실시 중인 「재외동포현황」 조사를 고도화하여 국가별 통계 환경 차이와 동포들의 이동성에 따른 변동 요인을 보완한다.

아울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일정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등록을 의무화한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개선한다.

등록 서류 간소화, 재외선거인 등록과의 연계, 출국 전 사전등록 및 갱신제 도입, 등록 안내 문자 발송 등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재외국민등록 의무가 없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 주관 사업·행사 참여 시 인증 절차를 거쳐 개인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동포단체 지원 기준 및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연계한다.

이와 같이 확보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동포 DB」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일관된 정책 운영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 동포 사회의 핵심 민원에 대한 실질적 해법 제시

먼저,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형식적 권리에 그치지 않도록 재외선거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순회 투표소 도입, 투표 시간·기간 확대 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통합선거인 명부 활용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없이 투표하는 등 재외선거 인프라를 개선한다.

근본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과 ARS 본인확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우편·전자 투표 도입을 위해 국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간다.

두 번째로,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한 한인정체성 교육 기반을 강화한다.

전 세계 1,400여 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원 확대에 걸맞은 관리·점검 체계의 강화를 병행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된 재외 한국어 교육 사업을 연계·조정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콘텐츠 개발과 교육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동포 거주지 현장에서의 밀착 행정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의 동포 영사 기능을 강화한다.

재외공관이 현장에서 동포사회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동포청이 정책 전략과 자원을 제공하고, 동포단체가 정책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동포 밀집 지역이나 현안이 많은 핵심 공관에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 영사를 배치하여 현안 대응, 갈등 조정, 선거 지원 등 공관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강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고려해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낮춘다.

우리 사회의 인구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활동인구 유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유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병역필 또는 면제자를 대상으로 우선 만 50세 하향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제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정을 검토한다.

3. 한인 사회의 네트워크 강화 및 공공외교 활동 지원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민간법인으로 전환해 동포 활동 지원의 자율성과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

동포의 공공·경제외교 영역에서 동포사회가 보다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재외동포청과 산하기관 간 기능 중복 문제도 함께 해소한다.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통합형 「세계한인대회」를 신설·정례화한다.

한인회장단뿐 아니라, 한상, 직능단체, 청년, 차세대까지 포괄하는 대표적인 소통의 장으로 운영해, 동포사회의 의견이 동포정책에 반영되는 공식 채널로 기능하도록 운영 한다.

한편, 동포사회 내부의 책임성과 연대 기반을 확충한다.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민간으로 이양한다.

또한 민간 주도의 대륙별 대회 개최와 지역별 지부 결성을 지원하여 동포사회의 역량 결집을 돕는다.

아울러, 한인회의 효율적 회원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동포사회 결집 및 정부의 동포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한다.

영향력 있는 동포 인사를 중심으로 공공외교 활동을 활성화하고, 대통령 해외 방문 계기 「한-거주국 친선 주간」 등을 통해 주류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동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연계하는 등 민생 경제와 연결되는 성과 창출에도 주력한다.

4.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을 통한 국가 역량 확장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취업-정착을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을 2026년부터 신규 도입한다.

지역 특화형 인재로 육성해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하도록 운영한다.

고려인, 사할린, 입양, 재일, 원폭 피해 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동포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강화한다.

안정적 정착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역사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 내 「귀환동포 국내정착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맞춤형 지원과 국내외 동포간 교류를 촉진해 포용적 사회 통합을 도모한다.

5. 범정부 동포정책 추진체계 정비

재외동포 정책의 분산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기획, 조정, 집행 기능을 일원화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동포 관련 법·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국가 정책으로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적극 추진한다.

재외동포가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직능·세대·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동포들이 정책 발굴, 자문, 평가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일부 왜곡된 정보로 인한 재외동포 인식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회 통합을 촉진해 나간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동포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며

"동포의 시선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끝까지 답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이모저모

(2면의 계속)

러시아 주민 절반, 새해 연휴 여행 계획

'아위토(Avito)여행'과 '아위토(Avito)광고'는 새해 초 국내 여행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51%)이 새해 연휴 기간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1인당 평균 여행 예산은 약 55,000루블리로 집계됐다.

응답자 가운데 13%는 이미 국내 겨울 여행지를 선택했다고 밝혔고, 15%는 몇 가지 후보지 중에서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22%는 여행 의향은 있으나 아직 준비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다. 러시아 주민의 절반에 가까운 48%는 새해 연휴 동안 여행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새해 연휴 기간 가장 선호되는 선택지는 친척이나 친구 방문으로, 응답자의 54%가 이를 택했다. 시골이나 다차(별장)에서 시간을 보내겠다는 응답자는 38%였으며, 25%는 요양원이나 스파에서의 휴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스키 리조트를 선택한 응답자는 16%였다.

여행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은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예산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응답자의 56%가 예산을 주요 고려 사항으로 언급했으며, 41%는 예정된 휴가지의 기상 조건을, 39%는 항공권 가격과 좌석 가용성을 중요하게 본다고 답했다.

새해 연휴 기간 여행을 떠나는 주된 이유로는 '환경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응답자의 52%가 이에 동의했다. 이어 가족·파트너·친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9%, 정신적 회복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46%로 나타났다.

가장 일반적인 새해 여행 예산은 1인당 30,000루블리 미만으로, 응답자의 43%가 이 범주에 속했다. 30,001루블리에서 60,000루블리 사이를 지출할 계획이라는 응답자는 22%였으며, 60,001루블리에서 100,000루블리 사이의 예산을 고려하는 응답자는 13%였다.

새해 여행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로는 친구나 지인을 통한 추천이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44%가 이를 선택했다. 인터넷에서는 광고 게시판 사이트와 마켓플레이스 광고가 가장 영향력이 컸고, 이를 통해 28%가 여행 옵션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TV 광고는 응답자의 16%, 비디오 플랫폼 광고는 15%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아위토(Avito)여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의 새해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단기 임대 주택 예약은 전년 대비 17.5% 증가했으며, 시골 주택 예약은 5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거용 단기 임대 예약 건수를 기준으로 새해 연휴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은 모스크바 주와 레닌그라드 주, 크라스노다르 변경, 타타르스탄, 스타브로폴리 변경으로 나타났다. 외곽 주택의 경우 카렐리야, 카라차예워-체르케시아, 크라스노다르 변경, 야로슬라블리 주, 아디게야에서 예약이 특히 활발했다.

Половина жителей России планирует путешествия на новогодних праздниках

Авито Путешествия и Авито Реклама провели опрос среди 10 000 жителей страны, чтобы узнать о планах на поездки по стране в начале января. Отправится в путешествие половина респондентов (51%), а средний бюджет на поездку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55 тыс. рублей на человека.

Так, 13% опрошенных уже выбрали локацию внутри страны для зимнего путешествия, 15% определяются между несколькими вариантами, а 22% хотят уехать, но пока не начали подготовку. Меньше половины опрошенных жителей России (48%) не планирует поездки на новогодних праздниках.

Самый популярный вариант среди опрошенных — поездка к родственникам или друзьям, так ответили 54% респондентов.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за городом или на даче собираются 38%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а четверть (25%) предпочитают отдых в санатории или спа-центре. Горнолыжные курорты привлекают 16% респондентов.

Среди тех, кто не принял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решения о поездке, наиболее значимым фактором остаётся бюджет: его отметили 56%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На погодные условия в предполагаемом месте отдыха обращают внимание 41% респондентов, а на стоимость и наличие свободных билетов — 39%.

Главная причина путешествий в новогодние праздники — желание сменить обстановку, так ответили 52% опрошенных. Для 49% важно провести время с семьей, партнером или друзьями, а для 46% —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морально восстановиться.

Самый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й бюджет на новогоднюю поездку — до 30 000 рублей на человек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43%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Еще 22% готовы потратить от 30 001 до 60 000 рублей, 13% планируют расходы в диапазоне от 60 001 до 100 000 рублей.

О выгодных предложениях для новогодних поездок люди чаще всего узнают от друзей или знакомых —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44% респондентов. Самым популярным источником в интернете является реклама на сайтах с объявлениями и на маркетплейсах — с ее помощью 28% респондентов находят подходящие варианты туров. Реклама на ТВ влияет на выбор 16% опрошенных, а на видеоплатформах — 15%.

По данным Авито Путешествий, в среднем по стране на новогодние праздники (31 декабря 2025 —10 января 2026) пользователи забронировали на 17,5% больше посуточных квартир и на 57% больше загородных домов,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амыми популярными регионами на новогодние праздники по количеству бронирований квартир стали Московская и Ленинградская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Краснодарский край, Татарстан и Ставропольский край. Загородные объекты пользователи чаще бронируют в Карелии, Карачаево-Черкесии,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Ярославской области и Адыгее.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RADIX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полугодие — 885 руб. 9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싣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윅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